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565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2월 15일(음력 1월 18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29

은혜를 갚는 마음 끝간 데 없이 계속돼야

(지난 호에 이어서)

▲사회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스님: 예, 괜찮습니다.

▲질문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스님께서 미리 아시고 해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 법형제님들을 대신해서 스님께 질문드릴 수 있는 행운을 가진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대로 불교를 종교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교를 숭상하면서 자라 왔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현재는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도 10년 동안 법당에 다녔습니다. 3년 전부터 본원에 인연이 돼서 스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천도재를 이곳에서 올렸고, 또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서 백일기도 발원을 올려 전기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모두 스님의 해운(海運)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도제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여러 신도님들이 계십니다. 천도재를 올렸는데도 쫓불재니, 또는 조상을 위한 백종(百種)이니 이러한 여러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에 왜 계속 참여해야 하는지, 또는 참여해야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이

의문이 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스님: 우리가 왜 밥을 먹고 또 밥을 먹습니까? 아침 먹었으면 뭣지 점심 저녁까지 먹고, 그 이를 낳은 또 왜 먹습니까? 보십시오. 아침 솟송에 부모의 은혜를 갚고, 국왕의 은혜를 갚고, 만물의 은혜를 갚고 모든 생물의 은혜를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듯이 낳아서 길러서 이렇게 성장시켜 놓은 부모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낳아서 기르느라고, 이 도리를 잘 배우지도 못한 채 그냥 허덕덕 허덕덕 하다가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이 도리를 알고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천도를 시킨다는 것은 조상들이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지 말고, 현재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죄 석방이 되게끔 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태어나야 하고 독사같이 살았으면 독사로 태어나야 할 텐데, 그것을 무마시켜서 바로 다시금 인도환생하라고 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뭐가 따르느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도리를 만나서 공부하면서 부처님과 한 자리를 하시게 해 드리기 위한, 그 은혜를 갚고 묵은 빚을 갚는 그런 것이 즉, 재(齋)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린애를 낳아 놓기만 하면 다 사회인이 됩니까? 길러서 가르치고, 가르쳐서

다 정상으로 만들어 놔야만이 그게 어른입니다. 이제, 그럴 때까지는 해야죠. 그러다 보면 또 끝이 나요. 그러곤 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했던 것이 또 부모가 돼서 끝이 나고, 자식들이 또 그렇게 해야 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듬해서 효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 증조모는 천도를 시켰는데 왜 그르냐? 율타 조상들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천도를 시켰다면 천도된 분들은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깨우쳐서 부처님 한자리를 했다 할지라도, 천도가 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시기가 있고, 위에 올라가 앉아서 '아! 저놈은 참 착하구나.' 하고 내려다 보는 시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뭐, 내 부모만 부모입니까? 정말 부처님 자리 한자리를 했다 할 때는 그렇게 공을 들이고 훗날재를 하고, 백종을 지내고, 사월초파일에도 등 달고 다 이렇게 조상들을 위하는 게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로 돌아가니까, 전부 일체제를 다 더불어 일체 중생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자식 내 자식 따질 수가 없고, 내 부모 내 부모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면... 지금 높은 판사로 됐다면, 내 자식들만 자식이라고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무죄로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기가 있고, 아래서 허덕거리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시기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천도재를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지 말고 인도환생하여 태어나게 해 주소서.' 하는 겁니다. 또 부모가 인도환생이 된 후에도 이런 법을 알아서 정말 한자리 하도록 원하는 그 자식들의 은혜를 갚는 마음이 아주 끝간 데 없이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밥 한 번 먹고는 어떻게 밥을 또 안 먹습니까?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질문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을 공부하는 데 한 가지 야심이 있다면 그것은 건성성불인 결로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저희들의 욕구도 모두 그와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님을 따라서 배우는 저희들의 공부 목적이 결국 스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님께서 인연을 살펴보시기에, 저희들 가운데 점차 스님의 경지에 이를 제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감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 웃음)

▲스님: 네,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린 죽으나 사나 같은 도둑놈이듯이, 허허하... 다 한자리로 항상 도반이 될 겁니다.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빠르고 더딜 뿐이지, 다 됩니다. 그 뜻을 아십시오. 정말입니다. 이런 거짓이 아닙니다. 이제 뭣입니까? 허허하...

▲질문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참회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원효 선사의 경전 해설 『대승유점참회론』에 이르기를 "모든 죄는 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죄업은 안에도 밖에도 없으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심오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얼핏 느끼기에는 그러면 '죄업이란 없다' 그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죄업이 실재하지 않는다면 참회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스님: 그것은 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게 불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냥 여여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중에서 대답할 분 안 계십니까? "모든 죄업이 불을 것도 없고,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까닭이 무엇이라는 얘깁니다. 죄업이 불붙어서 하나도 불을 자리가 없다 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얼른 한자리 하 시죠?

▲신도: (대중 가운데서) 참나로 돌아가니까



병은 내 공부의 재료

나를 가르치기 위해 테스트하는 것



어떤 죄업도 붙을 것이 없다!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다!

없죠.

▲스님: 예? 허허하... '참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없다.' 이런 소리를 '들 아니게 공(空)해서 돌아가니까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참보패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건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붙을 자리가 없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병을 20년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길 들고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앉아서 '병이 그렇게 있는데...' 그러기에 내가 그냥 퍼뜩 그런 말을 해 버렸어요. "병 붙을 자리가 어디 있길래, 병 내놔 봐! 고쳐 줄게." 이랬거든요. 그랬지만 입을 딱 벌리고 생각을 하더니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가는 도중에 그냥 나아 버렸어요. 그 사람도 그러한 병 때문에 10년, 20년 그냥 공부를 해 온 거죠. 좌선도 하고 뭐 별짓 다 했답니다. 그래도 그렇게 배워 왔기 때문에 말뚝을 퍼뜩 알아들은 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자세히 가르쳐 드리라고 또 말하는 겁니다. 병 증세를 병원에서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이름이다, 삼재가 들었다고 하는 것도 이름이다, 가지 못한다 간다, 이사 가는 방향을 봐야 한다 하는 것도 이 모두가 관습이다. 그러니까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다고 하는 것은,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니까 그대로 자재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인간은 나쁜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아니까 그걸 가려서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냥 놓고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법이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판단을 해서 봤을 때 그대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없지요. 허허하... 붙을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바로 참나참나 나투어서, 바뀌어서 돌아가는 까닭이다.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하며, 어떤 거 붙었을 때 내가 나한테 붙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누구니까 다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드리지는 못합니다. 허허하... (대중 웃음) 삼체를 모르고는 이렇게 못합니다.

▲질문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선원에 나오기 전인데, 불교를 숭상하다 보니까 여러 스님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님 한 분께서 불법의 참뜻을 일컬어 '판치생모(板齒生毛)'라고 자주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집착으로는 말을 어떤 경지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가끔씩 그 말

30면으로 계속

근본에다 그냥 놓고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法

29면에서 계속

이 무슨 뜻인가 하고 다시 헤아려 보곤 합니다. 판 처생모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지,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스님: 간단합니다. 남편 같은 이빨에 털이 난 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물었을 겁니다. 판때기, 즉 말하자면 '이 남편지같이 생긴 이빨에 털 난 까닭이 무엇인가?' 하고 옛날에 그저 낚싯밥으로 던진 애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럼 빨리 알아들으시죠? 낚 같은 이빨에 털 난 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러면 지금, 이빨에 털 난 것을 말하는 건데, 어디 있는 것이 귀신 방귀싸내고 물은 거와 마찬가지로 아닌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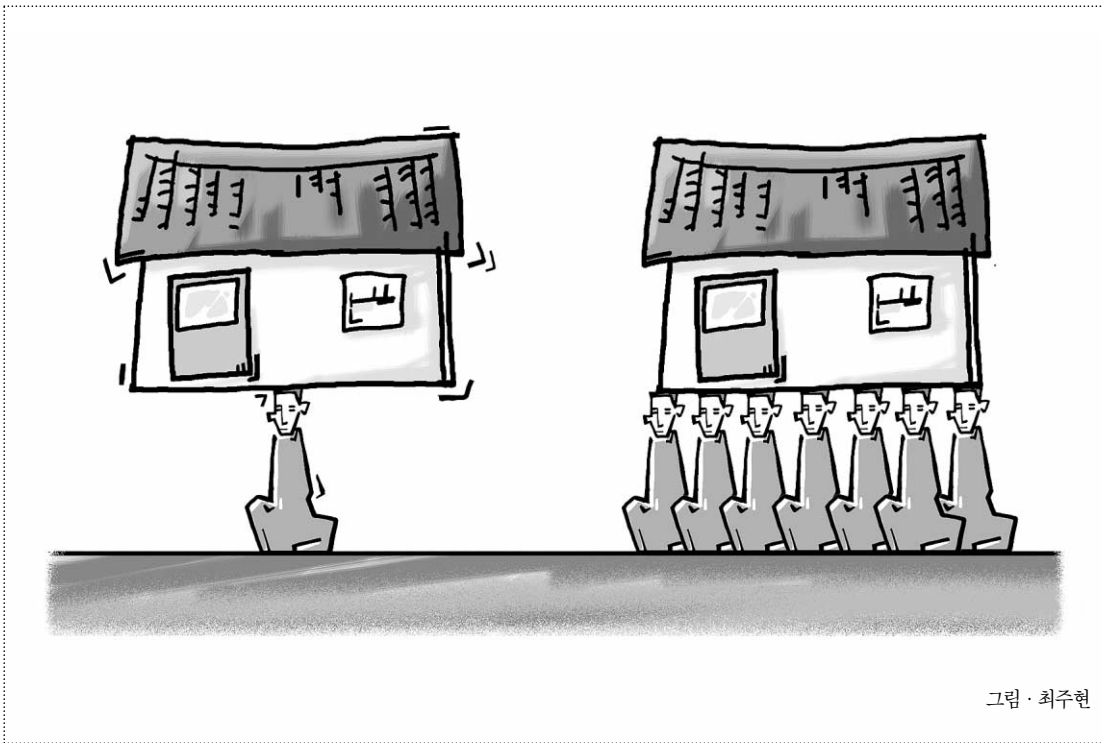
그러면 지금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다 해서 그 괴로운 마음을 내어서 보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달마 대사가 헤가 스님에게 "네 편안치 않은 마음을 내놔라. 그러면 내가 고쳐 줄 테니까." 이랬듯이, 뉴욕 사람이 왔을 때 "아, 병을 내봐 보라. 내 고쳐 줄게." 했듯이,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그 말대답을 할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말대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보기 위한 방편이지요. 얼른 쉽게 말해서 박이 익었나 안 익었나 하고 바늘로 푹푹 찌러 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물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일러 주고 대답을 바라는 사람이 어딴나 하겠지만요. 하하하... 어떻게 간단하게, 묘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도2: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대답하렵니다. (손뼉 치는 소리)

▲스님: 하하하... 이거 봐! 이거는 참고적으로 들어야 돼. 털이 난 거를 알았다 하고 봤다 할지라도 이거를 가르려면, 허! 몇 해 걸려, 하하하... 그런데 이거를 가르려면 말이다. 그 판처생모에서 그 털 난 것을 더 먹어도 안 되고 털 먹어도 안 되고, 그 털을 털한테다가 먹일 때 아주 조심조심해서 그대로, 나온 자리예다가 그대로, 지금 놓으라고 하듯, 더 배불리 먹어도 아니 되고, 털 먹어도 아니 되고 잘 먹어서 돌 아니게 나무는 그 도리를 알기까지 잘 키워야 돼. 알았지? 하하하...

▲질문자: 여러 가지 가르침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글쎄 오늘 스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영광된 기회를 빌어서, 이미 오늘 법문 중에 해답이 다 나왔지만 저의 신상문제를 감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선원에 나오기 전에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그 당시 스님 친견을 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 병원 치료도 받고 해서 거의 완치가 됐었는데,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증세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 공부를 못해



과거 자리 현재 자리가 따로 없이 그냥 자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가지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을지, 미련하도 보니가 해답을 다 주셨는데도 해답을 좀 더 얻고 싶습니다. 스님, 가르침 주십시오.

▲스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하죠? 그럴 때에 자갈하고 모래하고 양회를 쳐 놓고는 그냥 놓아두시죠? 첫번부터 기초가 잘돼야 어느 집이든지 쉽게 헐어지지 않습니다. 네그릇도 지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병 붙을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안의 모든 것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놓아두는 도리를 이 속에서 모두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사람이 그 도리를 완전히 모를 때, 집을 지을 때 기초하듯 다지고 또 다집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시 병이 일어나면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 하고 테스트를 하는 도리를 모르십니까? 병이 아니라고 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도리가 있는가 하면요, '병에 걸릴 수가 없다. 병은 재료고 나를 가르치기 위해 바로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건 이리 찢어 보고 저리 찢어 봐도 뭐 그냥 하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하고 물러서는 겁니다.

채찍질이라는 것은, 나를 내가 발견했을 때 스승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 스승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는 스승을 발견해서 스승한테 재찍을 맞는 겁니다. 맞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는 그런 경고도 나올 뿐만 아니라 못된 짓을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하하... 그냥 누(뽕)가 되게, 저

기 나가서 그저 아무 말이나 막 하라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고 그냥 힘부로 해 버리나, 그렇지 않으면 믿는 반면에 '누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 하고 다시금 돌려 놓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지혜로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쁨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시금 재출발을 합니다. 재다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 기초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기초를 어중잡게 해 놓으면 벽에 금이 가고 전부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는 기와 인것도 그냥 잘못 돼 가지고 썩거리고 일그러지니까 전체 비가 새고 그러합니다. 그와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병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몸을 가졌는데 어찌 아프지 않으리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아프다 하면 콧방귀

입니다. 하하하...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네 몸이 아플 땐 어떻게 하겠는가?' 할 때, '허, 참! 맘대로 해라, 네 몸 네가 끌고 다니는데 누가 뭐라 하겠나? 네 몸을 내가 끌고 다니는 거니까 심부름을 시킬만 하면 그냥 끌고 가고, 이제 이런 거는 심부름도 못하겠구나 할 때는 옷을 벗기든지 맘대로 해라, 입히는 것도 벗기는 것도 너 알아서 해라지.' 그러고는 또 한 번 생각합니다. '내가 가겠다고, 옷을 벗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벗겨야지, 너 그렇잖으면 혼나!' 하하하... (대중 웃음)

혼난다는 거는 이렇게 상대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없으니까 나를 얹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두고서 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경계가 되고, 상대가 되고 이러니까 안 되죠. 그런,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원자라던 원자에서 입자가, 분자가 많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라서 완성이 된다면 그것이 또 원자가 되고요. 마음이 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피가 늘어나도 늘어나남이 없고, 또 많이 넣어도 두드러짐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냥 자유자재하게 내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쥐고 있다는 결론이죠. 여러분이 마음이 밝으면 태양계도 여러분이지 판게 아닙니다.

▲질문자: 여러 가르침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스님: 그래서 지금도 그 병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 웃음) 도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자: 지금 스님 가르침을 받고 그런 생각이 없어져 되는데도, (대중 웃음) 그게 지금 안 됩니다.

▲스님: 그 왜 그렇게 질질질하게 그걸 떠나질 못하십니까?

▲질문자: 이제 이 자리를 떠나면서 다 펼쳐 버리겠습니까.

▲스님: 허허, 펼쳐 버리는 게 아니라요. 옹골코에다 그거를 그냥 놓으면 그것이 그냥 재생돼 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에 다시 출현이 될 때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아까도 과거고 조금 아까도 과거니까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떠나도 지금 있었던 자리가 과거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과거 자리, 현재 자리가 따로 없이 그냥 자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질문자: 감사합니다.
▲사회자: 오늘 법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3년 2월 7일 범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화당인생풀이 V2.2(동양철학) 네오헬스 V2.0 (사상체질의학) 인장성명학 V2.0 (작명)

▶특별 할인 후 총장 220,000원(무료?)

동양철학 사주팔자, 운학, 명사주, 투쟁비결, 점성술, 성명학, 관상, 수상, 점해몽, 인체리듬, 사주사건지능, 방명록, 상담기록, 출력기능, 상호등록

사상체질의학 뇌의 체질진단(문답형), 알기쉬운 약선운동(신종류, 약재류), 사상체질의학, 내과건강정보, 생활속의 약선요법, 사상체질식단 등

인장성명학 개요(성명학, 인장학, 개운법), 성명풀이(한글,한자) 음양오행 사주풀이, 작명(음양, 음오행, 수간(원격, 원격, 이력, 정적), 감명결과) 상호등록

■ 그동안 3,000여장의 판매실적과 많은 분들의 입소문으로 입증된 사주풀이의 진수/국내최초 동양철학 사주지판기 "사주천하 특허 획득" 및 "LG산전 500여대 납품실적"

■ 주문 선착순 100명에는 왕초보도 친척류는 "사주세상 ₩47,000원" 또는 사상체질 의학의 진수 "사상약물방제대전 ₩68,000원" 을 드립니다. *특별선물증정★

불기행사 서화당 V2.2 ₩220,000 / 네오헬스 V2.0 ₩110,000 인장성명학 ₩110,000원 총 ₩440,000원에서 -50% 할인 후 ▶총장 ₩220,000원에 본사에서 직접 공급합니다.

편안한 1안 : 금편행사 특별가액 ₩220,000원을 입금하고 구입하는 방법 2안 : 사용중인 인터넷 회선가입을 변경하고 ₩110,000원에 구입 3안 : 사무실과 집의 인터넷을 변경 후 "무선"로 구입하는 방법

위특가행사 구입방법중 고객님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정도는 운영 및 프로그래밍 개발 운영사업을 하는 사회백지사 이영수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구요? 지금보다 최대 25배 빠르고 저렴한 (GM)퍼블릭망상링크등) 또는 현재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주세요.

전화 한 통화로 전국에 가입 설치합니다.

입금처 : 국민은행 740901-01-310096 우계국 313049-01-003391 동 협 453050-55-002174 (계좌: (사)한국체질의학회연구재단)

(사)한국체질의학회연구재단 관주: 한국중앙연구원회 중앙회관 412동 41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1 (사)한국체질의학회연구재단

전화예약번호 ☎ 1600-4684(사주팔자) / H.P 010-3366-3366

간(肝) 이 간지방간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 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껍데기를 골라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룬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로 단위로 포장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이려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흰 향이려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타들어 가기까지 고약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훈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신마를 토종 (민속농원)

기관지천식

천연생약으로 치료한다 - 기천탕

수년간 기관지천식으로 고생하신 분은 **윤량한의원 윤량원장이 개발 지방간 기천탕으로 치료하세요**

기관지천식이란 천명을 수반하는 호흡곤란이 갑자기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가 잠시 계속된 뒤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되풀이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첫째는 기관지를 둘러싸고 있는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강하게 경련하여 수축되고 기관지의 내강은 좁아져 버리는 일입니다. 둘째는 기관지 안쪽의 점막이 염증으로 말미암아 비후되어서 내강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관지 점막으로부터 점조한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붙어나서 담의 양이 많아지게 되어 기관지의 내강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윤량한의원 윤량원장은 수년간 기관지천식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위해 천연생약으로 연구 개발한 기천탕을 수백명의 환자들에게 임상결과 많은 환자가 치료했으며 복용 환자의 증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일만 복용해도 80-90% 이상의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1-6개월까지 복용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지천식을 상담하십시오. 전화 및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기천탕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단, 지방간 전화상담만으로도 기천탕을 처방하여 보내드립니다.

윤량한의원 원장이 개발한 처방으로 기관지천식에서 해방되세요. 위의 천연생약으로 개발한 기천탕은 한의사와 상담후 처방됩니다.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 윤량원장은 수십년 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계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